도내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전북교육청, 2025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본격 추진

방통중 온라인 강의·인성 및 교과교육·봉사활동·진로탐색 등 이수시 학력 인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꿈이음'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통해 검정고시 외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꿈이음 누리집(www.educerti.or.kr)에 학습자로 등록한 후 △방송통신중학교 및 EBS 온라인 강의 △인성 및 교과 교육 △봉사활동 △진로탐색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 학습 시수를 이수하면 교육청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자치도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학습자 모집과 상담,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력인정 신청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오는 12월까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꿈이음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각자의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대안"이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력 인정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7일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민주노총 조합원 자녀에게 지급될 장학증서를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억압을 연대로, 상처를 희망으로"

전교조 전북, 창립 36주년 맞아 장학금 1300만원 지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8일 전교조 창립 36주년을 맞아 총 1,3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은 조합원 추천을 받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 10명, 지역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기 투쟁 가정의 자녀 6명 등 총 16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알트론 지회 임금 체불 투쟁으로 오랜 기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자녀 4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장학금은 2010년 조전혁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불법공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이 기금을 통해 억압의 결과를 연대와 희망의 가치로 되돌려주는 장학사업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이번 장학금은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정성껏 추천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다"며 "장학금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연대의 의미가 학생들에게 전해져,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희망으로 성장해 나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 "국제무대 리더 성장 응원하겠다"

원광 아너스클럽 초청 특강

서거석 교육감이 28일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원광 아너스클럽 기념식에서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원광 아너스클럽은 학업 성취도와 잠재력을 두루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과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광대학교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은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아닌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전북 출신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해결 방안 △전북형 AI 교육의 활용 전략 △전북 교육발전특구 사업 △대학생을 위한 추천 활동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총장 시절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로스쿨을 유치한 점 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28일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원광 아너스클럽 기념식에서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으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다지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재 할당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 등의 해법들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너스클럽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서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자 성장과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큰 꿈을 품고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원광대를 끝으로 국립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등 전북을 대표하는 4개 대학 학생과의 소통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전북교육청, '전북함께학교' 운영 방안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전북함께학교'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통한 '전북함께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는 물론 도민 누구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전북함께학교 누리집(http://jbe.go.kr/together)에 접속해 실명 인증 후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함께학교'에는 총 60건의 정책 제안이 등록됐으며, 이 중 28건이 담당 부서 공식 답변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공동체 사업 신청 방법 개선',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이 제안돼 해당 부서를 통한 답변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함께학교의 운영을 한층 더 발전시킬 방침이다.

우선 교육정책 발굴에 기여한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연말에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해당 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기준을 완화해 추천 수가 적더라도 '현장정책기획단'의 의견을 들어 제안에 답을 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북함께학교'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을 높여 도교육청 누리집, 전북교육소식 앱, 다양한 SNS 채널과 연동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교육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올 상반기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과학교육원에서 상반기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ESG)을 위한 노동인권 감수성 및 건전한 직업관 함양, 노동인권과 청렴 연수를 연계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세대 간 가치관의 이해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노사연수 설문 결과 만족도가 높았던 지방공무원의 세대 간 인식 개선, 학교 현장 사례 등을 반영해 연수 내실화를 꾀하고자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도서출판 역랑 한국출판협동조합과 협약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28일 진리관에서 도서출판 역락(대표 이대현) 및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이사장 이대현)과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선도할 융합형 인재와 지역 출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욱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이대현 도서출판 역락 대표 겸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 재학생의 디지털 출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을 위한 제반 상호 협력 △학생 대상 비교과 특강 및 위탁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등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영국 친구들이 왔어요"… 한국 속에 핀 글로벌 우정

정읍 왕신여중, 영국 룸지 스쿨 학생들과 국제교류수업 활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진행

정읍에 위치한 왕신여자중학교(교장 염길중)가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국제교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왕신여중은 지난 26일 영국 룸지 스쿨(Romsey School) 학생 10명과 인솔교사 2명을 초청,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양교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 꾸준히 교류해 온 데 따른 오프라인 만남의 장이었다.

학생들은 △한국 전통 의상 한복 체험 △다례 교육 △태극기 키링 만들기 △한글 자개 거울 공예 △한국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다졌다.

룸지 스쿨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특히 한복을 입고 차를 따르는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에 위치한 왕신여중학교가 지난 26일 영국 룸지 스쿨(Romsey School) 학생 10명과 인솔교사 2명을 초청,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염길중 교장은 "지속적인 온라인 교류와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왕신여중은 지난 5월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방문해 교류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오는 7월에는 학생 16명과 인솔교사 2명이 영국 룸지 스쿨을 방문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AI·SW 인재 발굴… 전북대, 'JBNU SW·AI 경진대회' 개최

전공 구분 없이 학생 참여 가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5 JBNU SW·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SW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소프웨어(SW)부문은 5월 23일까지, AI 부문은 6월 2일까지다. 전체 시상식은 6월 5일 열린다.

올해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간 구분을 없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상은 전공별로 분리해 공정한 경쟁과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진대회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 운영된다. SW부문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SW 개발'을 주제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발표하는 형식이다. 현업 전문가들이 직접 멘토링과 기술 자문을 제공해 실무적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AI부문은 '생성형 AI(LLM)와 인간: 텍스트 판별 챌린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트와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를 구별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송현제 교수의 사전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참가 학생들의 이해력과 분석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교생의 AI와 SW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비판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 능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8년 연속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선정

우석대, 전북·제주권 주관… 지속 가능 교육나눔 실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8년 연속 전북·제주권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속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는 물론 학교생활 적응과 교우관계, 진로상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우석대는 지난해 169명의 재학생이 총 6만 1348시간에 걸쳐 교육기부 멘토링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지역 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중심축으로서 교육기관 및 참여 학생 간의 연계를 주도하고, 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는 총 7억 4580여만 원의 장학금을 확보, 내년 2월 9일까지 200여 개의 교육지원 기관과 협력해 160명의 대학생 멘토를 파견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대학생 멘토들이 들려주는 실제 경험과 지식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고, 나아가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순환적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